

하늘의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성경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 ~ 16절>

[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 보이셨던 여러 기적들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던 것을 기념하여서,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달(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십오일_출 16:1)이 지났습니다. **이제 양식도 거의 떨어지고, 다른 먹을 만한 것들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비하셨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만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다. - 말씀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날마다 친히 먹이십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밤새 내려온 이것은 **만나**라고 불렸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보는 것이었지만, 이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내 먹었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시고, 생존하게 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만나를 거두는 시기와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먹이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 8:3) [3] ...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만나(육의 것으로도)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2.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케보드”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는 거의 90%가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밤에는 메추라기가 날라 오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우리 앞에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들이 하는 원망의 말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는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의 원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에서 시작된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소서.
2. 입술의 파수꾼을 허락하셔서 원망 없이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분명히 경험하게 하소서.